

조용필·BTS... 계묘년이 특별한 스타들 어른도 아이도 즐거운 애니메이션



조용필



BTS

월드스타 BTS 데뷔 10주년... 개별 활동·입대 예정 데뷔 55년 가왕 조용필, 연말 10년 만에 20집 발매

2023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올해가 더욱 의미가 큰 가요계 스타들에 관심이 쏠린다.

1월 가요계에 따르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은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는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 '부 쿨 포 �쿨'(2 COOL 4 SKOOL)로 데뷔했다. 이들은 당시 인기 프로듀서 방시혁이 키운 '힙합 그룹'으로 반향아 이미지가 강했다. 이후 동 세대가 공감하는 음악,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라이브 실력, 친근한 소통방식 등으로 서서히 팬층을 쌓아나갔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이던 2020년 글로벌 히트곡 '다이내마이트'(Dynamite)를 시작으로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등 여섯 곡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 위곡에 올리는 대기록을 썼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만행 진의 입대를 필두로 '군백기'(군 공백기)에 돌입해 팀 활동은 잠시 멈춘 상태다. 올해에는 멤버 상당수가 입대에 병역

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K팝 한류를 불 지핀 그룹 동방신기는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한다. 동방신기는 2004년 1월 데뷔 싱글 '허그'(Hug)를 발표했다. 이어 앞서 첫 무대를 꾸민 특집 음악 프로그램 '보아&브리튼스 페셜' 방송일인 2003년 12월 26일을 데뷔일로 삼는다.

동방신기는 데뷔 직후부터 '허그', '믿어오', '라이징 선'(Rising Sun), '주문' 등의 히트곡을 줄줄이 배출하며 H.O.T. 해체 이후 당분간 침체해 있던 보이그룹 시장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데뷔와 동시에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요즘 K팝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동방신기는 일본에서는 밀바닥부터 차근차근 인기를 쌓아나갔다. 여러 곡을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려놓은 것은 물론, 현지 가수에게도 '꿈의 무대'로 불리는 도쿄돔과 닛산 스타디움에서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소송 제기는 2009년)

팀에서 탈퇴해 JYJ를 결성한 가수 김재중과 김준수도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솔로 가수와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가왕' 조용필은 올해 데뷔 55주년을 맞아 연말 2013년 19집 '헬로'(Hello) 이래 10년 만에 20집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상반기에는 20집 수록곡 일부가 담긴 미니음반도 발표한다.

1968년 록그룹 에트킨즈로 데뷔한 조용필은 김트리오, 조용필과그림자 등 밴드를 거쳐 솔로로 나섰다.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히트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등이 수록된 1집으로 국내 가요계 사상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조용필은 지난해 11월 20집의 선공개 싱글인 '찰나'와 '세렌게티처럼'을 발표해 여전히 세련된 감각과 녹슬지 않은 보컬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조용필은 같은 달 연 단독 콘서트에서 "(공연을 열지 못한) 지난 4년이 40년 같았다. 가수 생활 이후로 (공연 공백이) 가장 긴 시간 같았다"면서도 "그래도 신곡을 낼 수 있다는 게 행운"이라고 말했다.

'장화신은 고양이' 4일 개봉 '슬램덩크' '프린스 차밍' 등

귀여운 고양이 히어로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작품부터 1990년대를 재패했던 만화 '슬램덩크' 극장판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1월 관객을 찾는다.

먼저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사신)'이 4일 개봉한다. '슈렉' 시리즈 인기 캐릭터 장화신은 고양이의 두 번째 솔로 무비다.

아홉 개의 목숨 중 단 하나만 남은 장화신은 고양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원별을 찾아 떠난다. 전 연인 키티 말랑손, 보호소에서 만난 유기견 페로도 함께다.

영화는 장화신은 고양이의 모험을 통해 진정한 용맹함의 의미,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한다. 장화신은 고양이와 페로,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동물이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도 따뜻함을 더한다.

11일 개봉하는 '프린스 차밍'도 '슈렉' 시리즈의 스핀오프(파생작)격 작품이다. 슈렉에게 피오나 공주를 빼앗겼던 '마마보이' 프린스 차밍이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로 새롭게 그려진다.

세상 모든 여자가 한눈에 반하게 되는 '매력 저주'에 걸린 왕자는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까지 세 명의 공주와 동시에 약혼하며 '나쁜 남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겨울왕국' 주제가었던 '렛잇고'를 부른 데미 로바토와 팝스타 시아, 에이브릴 라빈 등이 더빙에 참여했다. 이들이 부른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도 기대를 모은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소프트가 만든 '캐리와 슈퍼콜라'는 18일 개봉한다. 11살이 된 캐리와 친구들이 초능력을 지닌 슈퍼콜라와 함께 우주 악당에 맞서는 이야기로, 캐리 콘텐츠의 첫 극장판이다.

국내 애니메이션 흥행 1위작 '마당을 나온 암탉'의 오성윤·이준백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댄스 타임'도 마련된다.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4일 관객을 찾는다. 인기 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이 작품은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원작의 주인공이었던 강백호 대신 168cm의 '넙바벌 가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만화 속 마지막 경기였던 산왕전을 생생하게 담았다.



이들 신작 외에도 지난해 개봉한 '극장판 뽀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 '눈의 여왕5: 스노우 프린세스와 미러랜드의 비밀' 등의 애니메이션도 내년 초까지 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신년 기획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신년 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한국의 인류유산(재)	00 커튼콜(재)	15 헬로킴즈 과학교실(재) 30 와썹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오세모(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남도 지오그래피(재)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고양이 목에 마йка드GO(재) 55 UHD 숨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항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연중 플러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나 35 광주MBC 특별기획 내 손안의 마한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두뇌공조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신년 기획 가요무대 55 신년 기획 더 라이브		30 MBC 신년 특선영화 코다	00 트롤리
11	30 KBS 뉴스라인	10 개는 훌륭하다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다큐 인사이드	50 아이 러브 스포츠	35 스포츠 매거진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미니특급대 브이레전즈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워터스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7:15 출동! 슈퍼워즈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바닷가 사람들	19:50 인간과 바다
08:00 동등당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로보가 폴리	14:45 한국의 둘레길	<지중해 오디세이, 튀니지 -봉주르, 튀니스>
08:35 그린조끼 구조대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뒤죽박죽섬의 빅토패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새날, 길을 묻다 1부 온 마음으로 귀하게>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빅 블루	16:15 페퍼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어클 다이어리
09:35 타타와 쿠마	16:25 그린조끼 구조대(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동등당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일(음 12월 11일 庚申) ☎ 010-9790-8237

<p>36년생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는 영광이 따른다. 48년생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60년생 예감하여 왔던 바가 현실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72년생 깔끔하게 처리될 것이니 마음 폭 놓아도 된다. 84년생 예감치 못한 걱정거리가 생기겠다. 96년생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6, 66</p> <p>37년생 심오하고 미묘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입지에 놓인다. 49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책이다. 61년생 곧 익숙해 질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73년생 오랫동안 시일을 끌어 왔던 일이 시원하게 해결되리라. 85년생 바라던 일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97년생 이미 쏘아 놓은 화살이다. 행운의 숫자 : 28, 82</p> <p>38년생 의견을 달리하는 이가 보일 것이니 상충하는 대책을 세워야겠다. 50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 들여라. 62년생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74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는 것을 알아야 한다. 86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98년생 과신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9, 87</p> <p>39년생 주어진 여건에 불만을 갖지 말고 이리저리 궁리해 보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51년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만 한다. 63년생 적극적인 마음으로 인해야 진보하게 되느니라. 75년생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87년생 끈질긴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99년생 문제가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32, 65</p> <p>40년생 일석이조의 행운을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 기대해도 좋다. 52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과 실행이 요구된다. 64년생 순발력을 발휘한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76년생 근거가 빈약하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 88년생 기존 질서를 재편하는 파격적인 것이 낫다. 00년생 관점을 달리해 보자. 행운의 숫자 : 36, 74</p> <p>41년생 중요하다면 번거롭더라도 특별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53년생 지내 놓고 보면 과정에 불과한 것이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65년생 보류해 왔던 일을 다시 행해도 될 때이니라. 77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89년생 힘이 드는 하루가 펼쳐질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라. 01년생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0, 99</p>	<p>42년생 의외의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적절하다. 54년생 많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느니라. 66년생 상대의 안색만 봐도 쉽게 인식하리라. 78년생 별 문제 없으니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 90년생 빨리 끊는 물이 쉽게 식는 법임을 알고, 의연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02년생 애매하다면 판단을 보류하자. 행운의 숫자 : 33, 80</p> <p>43년생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55년생 비약하면 무리가 따르나. 67년생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79년생 일신이 안락하니 세심함이 태평하다. 91년생 너무 이변이 많아서 중립을 지킬 수도 있다. 03년생 일부 전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보 후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25, 54</p> <p>44년생 짜임새 있는 시간 활용이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56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68년생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음이 나을 것이다. 80년생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진땀을 빼겠다. 92년생 목격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편함만 나타난다. 04년생 오히려 인한 시비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9, 71</p> <p>45년생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7년생 참으로 어려울 때 우연히 협조자가 나타나서 물고기를 뜨는 형상이다. 69년생 매듭만 잘 풀린다면 순탄해진다. 81년생 경사스러운 일로 인해서 축재 분위기다. 93년생 차분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05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06, 58</p> <p>34년생 감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확인해진다. 46년생 확실히 분간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58년생 변수가 보이니 충분히 알고 개입해야 한다. 70년생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82년생 시의 적절한 운요이니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94년생 변화가 생기면서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다. 행운의 숫자 : 48, 69</p> <p>35년생 기존의 것을 지키는데 주력함이 현명하다. 47년생 평상시에 몹시 찾던 것이 코앞에 와 있느니라. 59년생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절실히 요구된다. 71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관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무의미하다. 83년생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95년생 막연하다면 절제할 수도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9, 86</p>
--	---